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선은 정권 폭정 멈추는 출발점”

여야, 사전투표 하루 앞 총력전

김기현 “대통령과 핫라인 구청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선은 일 잘하는, 국민 심부름을 할 모습을 보이는 선거, 국민이 원하는 지역발전사업과 민원을 풀어낼 해결사를 뽑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며, 특히 구민이 아니라 야당 대표의 심부름을 할 아바타를 뽑는 선거도 아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겨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오래된 빌라촌 다세대와 다가구가 밀집해 차량 한 대 주차하기도 어려운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하주차장과 녹지 문화가 있는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려 노력하는 여당 구청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 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대통령,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과 직통 핫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김 후보는 지난 1년여 짧은 기간 재임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냈다”며 방화역 5호선 차량기지 및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김포 이전 합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 9개

유치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대표는 “김 후보가 당선되면 강서구에 모아타운을 4개 더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역시 서울시장과 마음이 통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장기집권 기간 전전공공하며 풀지 못했던 굵직한 과제들을 속전속결로 풀어낸 김태우 후보가 당선돼 민선 8기 임기를 온전하게 채우게 되면 강서는 쾌속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번 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보선을 옛새 앞둔 이날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는 6·7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24일간의 단식 후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병상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영상을 촬영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며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 강서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적극 독려해달라”며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영상 캡처)

정부 “日오염수 2차 방류 모니터링 진행중”

“국민 건강에 영향 없도록 점검”

정부는 5일 오전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와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검토팀은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정보 제공이 다소 부실하다는 지적에 “당장 그 문제를 이의 제기한 것은 없으나, 적절한 계기에 필요하다면 시찰단을 통해 비공식적 또는 직·간접적 여러 방식으로 (의견 표명 등)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또 “정부도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고, 언어 서비스나 실질적 데이터 내용 구성 등에 있어 서 약간의 시차나 부족함이 있다고는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L)당 700베크렐(Bq) 미만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방류 이후 일본이 계속 삼중수소 증식

으로 측정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추가 측정을 진행하며 그 분석 과정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가 참여하는 형식을 논의 중”이라며 “또한 일본이 내놓은 결과는 정부가 사후 분석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방류 이후 진행된 시설 점검에서 원전 희석 설비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들뜨고 부푸는 현상이 확인된 데 대해서는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장에 파견한 우리 전문가를 통해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쿄전력은 ‘빛물 유입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도장 균열이 없는 등 방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국장이 전했다.

신 국장은 “도쿄전력은 추가 방수 도장을 해서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방수 도장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빛물 침투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신 국장은 또 “현재까지 검토 결과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된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 추가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되는 오염수 브리핑을 다음 주부터 주 2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尹 “750만 동포 뿔 수 있는 운동장 세계 곳곳에 넓혀 나가겠다”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현장 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한인의 날’인 5일 “120년에 걸친 우리 동포들의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이민사, 경제사를 써왔다”며 “이는 대한민국 역량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현장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세계 한인의 날 행사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들을 더욱 뚝뚝하게 살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가 뿔 수 있는 운동장을 세계 곳곳에 넓혀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동포들이 함께하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와 박진 외교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우 안보실 1차장,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 주요 인사와 각국 한인회장 350여명이 참석했다.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 재일동포 3세 배우 박소희는 이날 이민자라는 점 때문에 차별받으면 서도 한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히 살아온 경험과 앞으로의 다짐을 낭독해 현장의 박수를 받았다. 박 씨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온 가족의 4

대에 걸친 연대기를 담은 이 드라마에서 둘째 아들 모자수 역으로 출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배효준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국민훈장 무궁화장), 오유순 밴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국민훈장 모란장), 임호순 아프리카중동 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국민훈장 동백장), 김계수 파독광부기념회관 운영위원회 명예관장(국민훈장 목련장), 김수진 보라카이 한인회 회장(대통령 표창) 등 동포 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재외동포 관련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29일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와 가족 85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으며, 전날에는 국내·외 거주 중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40명을 한 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오늘 표결...불가 기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정치권과 사법부의 시선이 임명동의안의 향배에 쏠렸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쥔 셈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이균용 불가’ 기류가

강한 만큼 임명동의안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성범죄 관련 항소심 일부에서 감형한 이력을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판결과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운 불가론의 이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분은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치명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인준을 압박하고 있다. 과거 김영수 전 대법원장 청문회 때도 다문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야가 대응적 차원에서 인준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져 부작용이 커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가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